

2010년도 제1차 회의

No 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9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제1회의실

심사 안건

- | | |
|---------------------|----|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1면 |
| 2. 공무국외여행계획안 | 2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병주 (11시 01분 개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병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커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이은경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과 2011년 공무국외연수 심의 위원회를 할 때 열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위원장 윤병주

(11시 05분)

다음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정팀장은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서말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윤병주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한 공무국외여행 심의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연수목적은 의회 의원으로서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경험하여 세계화 마인드제고와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함양하며, 2020년 세계10대 글로벌창조도시 진입을 위한 현안과제 해결, 정책연구 모색, 벤치마킹은 물론 열린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의원 전문성을 향상하여 구정을 선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연수동기 및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선진 일본 연수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정치를 배우는 것은 물론 2020년 세계10대 글로벌창조도시 진입을 통해 해운대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운대 2030전략’과 연계해서 관광 및 레저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거점도시 성장, 쓰레기운영 관련 등 환경분야, 특화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재창조 및 격조 있는 도시조성 등 해운대 미래전략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는 물론,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관련기술이나 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운대 발전과 구민만족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4박5일간이며, 연수국은 일본으로 동경, 오사카를 중

심으로 요코하마, 교토 등 인근지역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연수 참여자는 의원 15명, 직원 4명을 대상으로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연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4박5일 동안 6개의 기관을 공식 방문하고 다섯 곳 정도의 시설을 방문 비교 시찰할 예정입니다.

연수 1일차에는 미나토미라이21 등을 방문하여 기업이나 쇼핑문화시설을 둘러보면서 우리 구의 대형백화점 등과 비교 시찰할 계획입니다.

연수 2일차에는 동경에서 쓰레기재활용 등 쓰레기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동경 대사관에서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 도심지 재개발 등 창조도시 사례를 비교해 보기 위해 미라토관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수 3, 4일차에는 교토에 있는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의회와 시청을 공식 방문하고, 오사카에서도 금번 연수테마에 맞게 환경분야인 쓰레기소각장과 도시디자인 개발, 정책비교를 위해 남바(Namba)파크 지역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식기관 방문 섭외는 동경 대사관과 오사카 영사관을 통해 해당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9월30일 이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인 5일차에는 도심관광을 통해 도심노점상 등 스트리트 운영 실태를 우리 구와 비교 시찰하는 것으로 4박5일 연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수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번 연수자들에게는 3개 정책과제를 부여하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 정책 분야에서는 나가오카쿄시의회 방문에서는 우리의 의회제도와 비교는 물론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관련 정보를 중점 수집하기 위해 운영위원장 등 팀장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관광활성화 정책 분야에서는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관광자원 개발 등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선진관광 운영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을 팀장으로 역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우리 구의 현안과제인 쓰레기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선진도시 쓰레기 운영 실태와 함께 도심재창조 부분 등 해운대의 미래전략과 연계해 시찰할 계획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장을 팀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하는 등 연수참여자 전원을 3개 팀으로 나눠 정책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를 분담하여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4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그리고 시찰 중 매일 일과 후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수일지를 기록해서 일지 위주로 소감발표와 토론회 개최 등 의원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8 규정과 ‘해운대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별표2에 의거해서 산출했으며, 환율은 9월8일자 기준으로 달러 당 1,2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집행계획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편성된 금액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결과 보고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오픈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주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시어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므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수미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는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분 내지 두 분 빠지시는 것 같은데, 개인사정 때문에 안 가시는 건가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 가시는가 보다. 이번에는, 처음 의회에 입성하시고 다 가시나 보다’ 했는데 열다섯 분 가신다고 해서...

나머지 분은 왜 안 가시는지요?

○김성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들이 17명인데 이번에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렇게 다양하게 당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민들하고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빠지신 두 분은 그 공약을 지키려고 자기들 스스로 못가겠다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해서...

○최수미 위원

공약사항에 공무국외여행을 안 가겠다고 공약을 하신 겁니까?

○김성래 위원

예, 사실은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5대 때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그런 자료를 보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은경 위원

약속이라는 게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이 선진문화를 알아서 우리 해운대구에 반영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공약 그거에 대해서 안가겠다고 공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비문제에 대해서 했다면 자비를 써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안 가시는 위원님도 그동안에 설명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국외연수’라고 하면 ‘놀러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에, 구민들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국외여행은 다녀와야 되겠더라고요. 갔다 와봐야 좀 아는 거지 우리가 이 안에서 맨 날 하는 건 우물안 개구리고, 그래서 갔다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가서 보고 우리 의회에 반영을 해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가는 의원님들을 그동안에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현 위원

작년에는 일본하고 유럽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일본만...

제가 볼 때는 작년 계획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김성래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까운 일본 선진국을 연수할 계획을 왜 세웠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일본에 1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쪽에 오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이 그 시의회하고 관계도 좋고 해서, 그분이 일본어도 프리토킹이 가능하시고 이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일본을 같이 가는 게 어떨겠냐? 하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동경이나 시내보다는 교토 근처에 시의회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홍순현 위원

저도 위원장 말씀처럼 가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김성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분의 내용에 의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6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또 해운대의 현안문 제라든지 미래에 걱정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별로 보고 와서 보고서를 하나 남기고, 또 보고서대로 실천이 잘 안 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도 1:1 토론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교토 정도 되면 지정학적으로 거의 고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선진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일본도 지방자치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지만 우리보다 오히려 뒤떨어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나 의회의 활동에 따라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있는, 정말 세계적인 지역들도 일본에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이번에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소외된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같이 유럽 쪽이나 이렇게 평상시에 가서 볼 수 없는...

일본은 쉽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소를 조금 더 과감하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홍순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했던 것이 훨씬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하는, 획일화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쪽하고 환경 쪽하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벤치마킹할 때 우리 해운대구에 적절하게 도움이 될 만한 시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토라든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행정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나눠서 한다면 좀더 효과성을 가져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제가 첫 번째 말씀에 드렸던 것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당위성 이것이 법으로도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통일된 마음을 같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심의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서도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바뀌신 의원들이 많으셔서 가까운 일본을 선택하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또 안에서도 의정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고 임하는 확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가셨을 때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못 가신 분도 그렇고 지역의 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선진문화를 배워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두서없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주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아직 날씨가 있으니까 많은 의논도 하면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위원

저도 심사가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이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두 분을 제외한 열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단합대회를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들 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번 연수에서 어떤 것들을 주 타깃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목표들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쓰레기처리장, 관광활성화 문제, 지방자치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시대적인 흐름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세 가지 의제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다른 의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도 많이 방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들을 간간히 보고 있는데, 특히 해운대구에서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연수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첨가되고 보충되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역의 순환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을 띄엄띄엄 갈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지고 지역주민들의 현재 생활, 요즈음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관심사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수에서도 반영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항상 빠지지 않는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관광자원 개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하시겠지만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아직까지 섭외 안 된 곳도 많아서 조금은 염려

8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최수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의정팀장님, 아직까지 모든 게 결정돼 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말숙

예.

○위원장 윤병주

최수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도 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래 위원

저희들이 국제화재단하고 계속 조인해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금방 최수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정팀하고 같이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이안호위원님.

○이안호 위원

저는 오늘 이 위원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 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홍순헌 교수님하고 이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때 연수과정을 돌이켜보니까 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적중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출산산모들에 대해서 칼슘제를 구 예산을 들어서 작지만 지급하는 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다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먼 안목을 가지고 선진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최수미 국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무국에 주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역시 제가 봐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자료를 더 수집하고 연구해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미 국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시다라는 고령화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 국의 시의회에서는 최소한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방문 국에 가서 4박5일 동안 다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의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자료를 구입해서 점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지기 때문에 한 군데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서 본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본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현 위원

결국 이게 담당공무원만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 의원님도 사무국에다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이니가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시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건방스럽지만 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안호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메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좋았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팀을 나눠서 1팀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2팀은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3팀은... 이렇게 팀별로 자료수집을 집중화하는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4일 정도의 해외나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가서 일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서 솔직하게 바람도 좀 쐬시고 기회가 되면 소주도 한잔 하시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도 포함을 해서 팀별로 교토시청에 갔을 때는 이안호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니면 1조면 1조, 2조면 2조 그거를 집중적으로 자료수집 해 달라 하면 그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그걸 가시기 전에 고민을 어느 정도 해서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거리도 막힘없이 나올 수 있고 그러지 대책 없이 사무국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가

10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서는 확-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고령화사회 이걸 꼭 한 번,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고령화사회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해운대 우동이나 좌동 이쪽은 별로 없지만 아시다시피 반여·반송은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문제나 환경문제도 머리 아픈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구의회에서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교육청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공약이 있을 것 같고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은데,

결국 말은 교육지원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챙기시는 건지, 현실적으로 우리 해운대구하고 일본의 모 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의 장·단점은 원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점검을 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해운대가 1등 구이라고는 소문이 나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아주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운대 브랜드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다행히 일본은 섬나라니까 해수욕장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챙겨보시고 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교통, 집중화문제라든지 숙박문제라든지 물가문제라든지 각종 범죄문제라든지 이런 것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도 챙겨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교통문제,

외부에서 다들 걱정하기를 제가 해운대에 산다고 하면 앞으로 해운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반여·반송은 앞으로 조금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우동·좌동·재송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께서 귀를 여시고 나들이 하시는 김에 구경하시고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홍성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김성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전국적으로 계속 신문에도 떠돌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동구장 건설을 위해서 해운대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경을 거쳐서 동구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동구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동구장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이안호 위원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이번 연수과정을 좀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아까 홍순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가지를 배워 오더라도 배워 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재선의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4명밖에 없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이 13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을 초선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유럽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과 ‘의회에서 일본연수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의회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 많은 돈 들여 유럽까지 가노? 평생 한번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나라를 의원 되고 나니까 2달 만에 가네.”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심의위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연수 때는 뭔가 배워 와야 된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가서 꼭 한 가지라도 배워 올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이안호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미 위원

1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제3호)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항상 저도 같은 레퍼토리라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연수에는 찬성합니다.

시민단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을 보고 오는 연수는 분명히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운대구에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겠다는 이런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간다’ ‘유럽을 간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시를 먼저 정해 놓고 뭘 볼게 있지? 이렇게 찾지 마시고 우리가 배워 오기 위해서는 유럽을 가야겠네, 일본을 가야겠네, 미국을 가야겠네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재선)

윤병주 이은경 김성래 이안호 홍순현
최수미

○의회직원

의정팀장(간사) 서 말 숙
속 기 사 하 효 진

○기타

사 무 직 원 이 용 현

의 석 배 치 도

(2010. 9. 27 현 재)

위 원 장
윤 병 주

이 은 경
(간 사)

김 성 래

이 안 호

속 기 석

홍 순 헌

최 수 미

김 재 선

발 언 대